

# 전자우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김정자\*\*

## 1. 문제 제기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나라에 소개된 지 몇 십 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컴퓨터와 인터넷은 그 이전의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변화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환경이 되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도 그것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45.5%이다. 그런데 10대 청소년 인터넷 이용률은 무려 81.6%에 달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조사 전문기관 닐슨/넛레이스팅스(Nielsen/NetRatings)가 발표한 전 세계 21개국 가정 내 인터넷 접속 비교 분석 결과도 이를 입증해 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 인터넷 접속자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

---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인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의 '하이퍼 미디어와 언어 문화 교육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하는 비율은 41.6%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인터넷 접속률은 우리의 절반 수준인 1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배 2001).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2001년 12월 발표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93.3%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서 20대는 84.6%, 30대는 61.6%, 40대는 36.6%, 50대 이상은 8.3%로 집계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20대, 30대, 40대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이용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될 사실이다. 특히 중학생 이상 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99%였으며 그 중 중학생의 이용률은 가장 높은 99.8%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국내의 인터넷 주 이용층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청소년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서 낙관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가지 역기능 현상<sup>1)</sup>이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 입장이든지 간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의 사용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흔히 Commerce(상거래), Community(커뮤니티), Contents(컨텐츠)를 일컬어 e-비즈니스의 3C라고 한다. 그러나 3C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제4의 C, 즉 Culture(문화)에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 사이버 문화 교육의 부재는 인터넷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각급 학교의 인터넷 교육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활용

- 
- 1)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은 주리에, 권석만(2001)을 참고할 것. 이들은 인터넷의 3대 기능을 정보제공, 의사소통, 오락으로 보고서, 정보제공과 관련된 문제행동으로 유행정보 제공 행동, 유행정보 사용행동, 개인정보 사용행동, 과도한 정보탐색행동,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문제 행동으로 성관계 추구행동, 공격적 가해 행동, 상업적 착취 행동, 과도한 교류 행동, 오락 기능과 관련된 문제 행동으로 게임 중독행동, 도박 중독 행동, 성적 자극 중독 행동을 들었다.

능력, 정보검색능력의 함양이라는 ‘컴퓨터 활용 기술 능력’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공간이자 문화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이다(민경배, 200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주목하고 있기는 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새로운 매체인 컴퓨터와 인터넷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 항목이 여러 개 있다.<sup>2)</sup> 그런데 이것은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

2)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찾을 수 있다.

<3학년>

-쓰기-

(7)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

<4학년>

(8)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

(기본)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학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글로 쓴다.

(심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신문에 실을 만한 내용을 글로 쓴다.

<5학년>

-쓰기-

(9)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

(기본) 글자의 모양, 크기, 문단 모양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보기 좋게 컴퓨터로 편집한다.

(심화)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을 넣어 자신이 쓴 안내장이나 신문 기사를 보기 좋게 편집한다.

<7학년>

-말하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말한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

-쓰기-

(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해 글을 쓴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글을 쓴다.

는 정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글을 쓰고 편집하는 도구나 표현할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와 텍스트로서의 컴퓨터나 인터넷의 가능성과 본질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접근에서 보면 한국은 정보화강국일지 모르나, 질적인 접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문화의 형성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즉 정보의 검색, 이해, 평가, 구성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나라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이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 등과 같이 누가 얼마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는가이다. 이러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사용과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을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와 방식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단지 종이 대신 화면에 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전자 글쓰기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 관점에서 전자 글쓰기의 일환으로서 전자우편에 접근하여 전자우편 쓰기 교육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2. 인터넷 이용동기와 전자우편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동기에 대해 파파캐리시와 루빈(Papacharissi &

Rubin, 2000)은 개인적 효용성, 정보탐색, 시간 보내기, 편의성, 오락성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파커와 프랑크(Park & Plank, 2000)은 효용성과 휴식으로 양분하면서 효용성을 동반자와 사회적 욕구를 원하는 사회적 효용성과 학습 및 흥분 욕구를 대변하는 개인적 효용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퍼저슨과 퍼스(Ferguson & Perrse, 2000)의 경우 웹의 이용 동기를 오락, 시간 보내기, 휴식-도피, 사회적 정보 등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에버솔(Ebersol, 2000)의 연구에서는 웹의 이용동기를 연구와 학습, 오락,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 시간 보내기 등으로 나누고 있다(최영, 2001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정보 검색, 오락, 시간보내기 등은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등 기존 매체의 이용 동기와 비슷하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능해진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양한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터넷 특유의 이용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최영(2000)은 인터넷과 웹의 이용 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이용 동기를 정보검색, 오락(휴식, 시간보내기), 커뮤니티/사회적 상호작용, 효용성으로 정리하고 있다.

민경배(2002)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정보의 네트워크, 의미의 네트워크, 행위의 네트워크로 나눈다. 아날로그 세계에서 물질로 고착화되어서만 존재 가능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무형의 비트로 전환되어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제되고 링크되고 전송되면서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인간과 인간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사회 공간으로서, 사람들은 메일을 주고받고, 채팅으로 수다를 떨고, 토론방에서 격론을 벌이고, 또는 게시판에서 글을 쓰거나 읽으면서 감정과 정서를 나누고 의견과 판단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서로간에 “의미의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비즈니스와 쇼핑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 하면 영화나

음악감상, 혹은 게임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분류와 명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의 이용동기와 성격 중에서 타 매체와 가장 구분되면서 특징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우편이다.

전자우편이란 네트워크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지를 작성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우편물을 송신하는 것이다. 전자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통신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자우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기술이다. 전자우편은 고성능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다(Moran & Hawisher, 1998).

황진구(2001)에서 청소년 정보화실태와 청소년 인터넷 문화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발표문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의 전자우편의 이용 변화이다. 청소년의 인터넷문화가 지닌 특징은 일차적으로 왜 인터넷에 접근하려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목적과 처음 이용하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컴퓨터의 이용에 영향을 준 사람의 경우 1999년도에는 부모(24.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1년에는 친구(36.7%), 부모(25.1%), 형제, 자매(13.5%)의 순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이용목적에서도 인터넷(53.2%), 오락(31.1%), 문서작성(9.2%), 음악감상(4.7%)의 순으로 나타나 1999년의 오락, 통신이나 인터넷, 문서작성의 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컴퓨터 이용의 변화는 인터넷 이용목적의 변화와 연관되는데, 1999년에는 '대화나 채팅'(32.2%), '학습이나 진로정보'(22.6%) 등의 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2001년에는 '전자우편'(28.2%), 게임

(23.9%), 채팅이나 교우관계(18.1%) 등의 순으로 변화되어, 현실공간에서의 관계를 확장하는 장으로서 인터넷이 주로 이용됨을 보여 준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우편이다. 정보 공유를 위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며, 비용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보고서(2002.7)에 따르면 2001년 6월말 현재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81.4%가 전자우편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 보유자는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평균 1.85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우편 보유자가 주 평균 송수신하는 전자우편은 49.2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반우편보다는 전자우편에 더욱더 의존할 가능성이 많다.<sup>3)</sup> 따라서 전자우편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전자우편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3. 전자우편의 기능

전자우편의 기능에 대한 질문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자 우편이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우편의 정보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전자우편

---

3) 본인의 경우 현재 일반우편으로 받는 편지를 한달 동안 모아 보았는데 그 중 개인적 용무의 것은 한통도 없었다. 전화요금, 카드명세서와 광고물 뿐이었다. 그 중 초고속 통신 요금과 모카드 회사의 명세서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있으며, 앞으로 나머지 전자우편을 이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2년 한해동안 개인적 용무이든 공적 용무이든간에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편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든 편지를 전자우편으로 이용하고 있다.

의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에 대한 질문이다.

일반 편지의 기능과 비교했을 때, 전자우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정보적 기능과 관련된다. 전자우편은 단순히 편지를 주고 받는 수단만은 아니다. 정보를 얻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얻는 것에는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뒤적이고 다녀야 했지만 이럴 필요가 없는게 메일링리스트이다(박우현, 1998).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정보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통해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전자우편의 정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우편 시스템은 메시지 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우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이정복(2002b)의 연구가 있다. 실제 전자편지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으로 그 구조적 특성과 기능, 그에 따른 언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대와 30대 이상 화자 집단을 구별하여 세대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정복(2002b)의 연구에서는 전자우편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sup>4)</sup>

- 가. 안부 묻기 : 안부 묻기, 안부 전하기
- 나. 마음 나타내기 : 감사, 축하, 사랑, 불만 등의 감정 나타내기
- 다. 정보 전하기 : 비일상적 소식이나 구체적 정보 전하기
- 라. 자료/행위 구하기: 자료 구하기, 행위 구하기
- 마. 즐거움 나누기 : 재미있는 글 전하기, 재미있게 글 쓰기, 시간 보내기

4) 이 중에서 20대는 안부 묻기 기능의 편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상은 정보 전하기가 48%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가, 나, 마의 기능은 상호작용적 성격이 강하고 다, 라는 정보적 성격이 강한 기능이다. 가와 나의 기능은 일반편지와 별 구별이 되지 않지만 라, 마의 기능은 전자우편에 두드러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작문 책에서 편지는 친교를 위한 글쓰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은 친교의 기능 외에 그에 상응하는 정보적 기능을 하고 있다.

전자우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안부도 전하고 마음도 전하지만 전자우편은 생각만큼 사적 접촉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문자 메시지와 전자 우편, 전화, 직접 대면과 비교했을 때, 직접 대면 접촉> 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순서로 사회적 실재감이 떨어진다고 한다. 대인미디어의 이용과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선택 행위 결정 요인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사회적 실재감과 용무적합성이라고 한다. 각 접촉 매체의 선택과 이용은 접촉 당사자 간의 친밀도 정도나 용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친밀도가 높은 사람들 간에 그리고 사적 용무와 관련해서는 전화나 이동 전화 문자메시지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안민호, 2001).

가, 나, 다의 기능처럼 매체로서 전자우편은 사적인 의사소통을 창조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전자우편 의사소통의 '온기(warmth)'를 언급했다. 그러나 전자우편의 '온기'는 친밀성에 대한 환상일 뿐이다. 즉 전자우편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얽매이지 않는 친밀성이란 함축을 지닌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키운다(Moran & Hawisher, 2001). 그러나 전자우편에 의해 맺어진 사적 관계는 한 사람이 편지를 그만두면 쉽게 끊어진다. 실제 세상의 관계가 없는 친밀함은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

전자우편은 문자 의사소통의 가장 빠른 형식이지만 가장 안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Flynn & Flynn, 1998). Moran & Hawisher(2001)에서도 전자우편 필자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수사학적 문제 중의 하나로, 전자우편은 일반우편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일반

편지는 봉투와 인장이 있으나 전자우편은 누구나 접근가능하다는 것이다. 우편엽서도 봉투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엽서는 발신-수신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으나 그 잠재적 독자가 한정되어 있고, 전자우편의 독자는 전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자우편은 일반우편과 달리 시스템에서 감시 통제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여행하는 모든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우편과는 다른 이런 프라이버시, 안정성의 결여는 메시지를 형성하는 전자우편 '상황'의 일부분으로서 전자우편의 메시지를 특징 지을 수 있다. 즉 전자우편은 사적인 기능보다는 공적인 기능에 더 적절한 의사소통 매체라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우편의 기능은 바로 광고 기능이다. 광고인들은 인터넷이 효과적인 광고매체라는 점에 주목하고 전자우편을 통해서 대량의 광고물을 값싸게 실어 나르고 있다.

필자가 한 전자우편 계정으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받은 61통의 전자우편 중 1통만이 공적인 기능의 편지였고 나머지 60통은 모두 광고 편지였다. 광고 편지는 전자우편의 제목에 [광고]라는 말머리를 달게 되어 있지만, 사적인 기능의 편지인 것처럼 위장하는 광고 편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성인광고인 경우가 많다. 이런 무차별적인 광고편지의 홍수는 꽤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전자우편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 
- 5) 최근 한 민간기업이 전자우편 해킹 및 조작, 인적 감시 등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성표(2002),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다", 월간중앙 5월호 기사를 참고할 것.

#### 4. 전자우편 텍스트의 구조와 언어

작문 이론, 의사소통 관련 분야, 관리, 원격 교육, 언어학 등에서 쓰기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의 등장을 반기고 있는데,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즉 성 역할이 재규정될 수 있고, 나이나 권력에 따른 위계가 깨어지고, 주변인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공간이 CMC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Moran & Hawisher(2001)는 CMC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인 “전자우편은 새롭다(new)”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이는 새롭다”는 의미와 같은 뜻으로 전자우편을 새롭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는 어떤 순간에는 어머니를 닮았고,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아버지를 닮았고 때로는 조부모를 닮았다. 마찬가지로 전자우편도 그 나름의 수사학과 언어에서 새로운 매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조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자우편의 유전자 은행에는 이전과 현재의 모든 양식(modes)과 인간 의사소통의 스타일이 있으며, 문어와 구어가 다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자우편은 일반편지와 비슷하며 둘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이전의 의사소통의 모든 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우편은 저장되고 검색되며, 복사될 수 있으며, 둘째, 전자우편의 전송 속도와 반응의 결과적 주기는 일반우편보다 훨씬 빠르고, 셋째, 전자우편은 우편 메일보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우편의 존재에 의해 일반편지가 변경된다고 본다. 이전에 일반편지가 담당했던 기능들의 많은 부분을 이제 전자우편이 담당하고, 전자우편의 언어가 일반우편의 언어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의 차이점은 텍스트의 구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일반편지는 오랜 관습에 따라 쓰는 순서나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받을 사람(호칭), 첫 인사, 하고 싶은 말(사연), 끝 인사, 편지를 쓴 날짜, 쓴 사람의 이름을 갖춘 형식으로 쓴다. 전자우편도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크게 머리부분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자우편의 머리 부분은 대개 보낸 사람과 날짜, 받는 사람, 제목 등과 같은 송수신된 우편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우편의 본문은 실제의 편지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우편을 쓸 때는 일반편지와 달리 보낸 사람과 날짜, 받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정복(2002b)에서도 전자우편이 일반편지와 텍스트 구조가 상당히 다르며, 이로 인해 편지 작성 과정에서 국어 화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전자편지에서는 배경정보, 특히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전자편지 주소가 본문의 앞쪽에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자들이 본문을 끝낸 후 보내는 사람을 밝힐지의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편지를 쓴 날짜는 거의 쓰지 않는 데 비해, 똑같이 전자편지의 머리부분에 전제되어 있어도 경우에 따라 보내는 사람(○○올림, ○○드림)을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매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편지들을 살펴보자.

<편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일찍 가게 되어 무척 섭섭했어요

...;;

기말 보고서요...

어제 가서 보니까 어제가 마감일이 아니라 최종본은 며칠 뒤에 수정해서 내도 되는 분위기이던데... 저도 며칠 뒤에 (다음주 수요일)다시 메일로 보내면 안 될까요?

어제가 최종마감일인 줄 알고 부리나케 정리해서 내긴 했는데 영 찜찜하네요

‘교수·학습’과 ‘과제 구안’의 관계도 미처 정리를 안 하는 등.. ‘고쳐쓰기’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

정 ○ ○ 올림

<편지 2>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음 .. 전에는 시험이 끝나면 정말 시원하고, 날아갈 것 같았는데, 이번 시험은 왜 이리 우울한지요.. T.T

교수님은 시험 기간에 뭐하세요..??

음.. 시험 감독은 대부분 조교님들이 하시던데요..

히히~~ 지난번 시험에는 교수님을 뵈었었지만..

감독 않나오셔도 되는 거면.. 여행이라도 갔다오심 좋을텐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시험기간 내내 날씨가 좋다가 시험 끝나자마자 구름끼고, 어제는 비도 쪼끔 오더라구요..ㅠ.ㅠ

하하하 ^^

그래도.. 부담이 줄어서 너무 기뻐요~~

5월부터도 열심히 살아야죠~!!

교수님도 힘내세요~!!! \*^^\*

<편지 3>

할롱.....방가루~~

무지 올만에 일케 땀을 보내는군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강??

나야머 아주 아주 잘지내시징

대학생활이 조금 힘들어 빠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머.. 나름대로 신나는 생활을 보내고 있정..

언제 함바야 하는데

공주오면 남주에 라도 연락좀해

얼굴 함 보장..

그럼 대학생활 즐겁게 잘 보내시고

연락 꼭 하성..

금 이만 빠빠이

<편지 1>은 <편지 2>와 <편지 3>에 비해 보낸 날짜가 빠지긴 했지만 일반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편지 1>과 <편지 2>의 받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편지를 쓴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편지 1>의 필자는 국어 교사이고 <편지 2>의 필자는 대학생이다. <편지 3>의 필자는 대학생이고 받는 사람도 대학생이다.

아직까지 전자우편은 일반 편지처럼 형식이 관습적으로 굳어지지 않아서, 앞의 예처럼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전자우편을 받은 상대방에 따라 받는 사람과 날짜, 보낸 사람 등을 생략하기도 하고 생략하지 않기도 한다.<sup>6)</sup>

---

6) 한 작문 교과서(지학사)에서는 전자우편을 쓸 때 일반편지의 형식을 따르도록 권유하고 있다.

전자우편이 일반편지와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머리부분의 제목이다. 이정복(2002b)에서도 전자편지 텍스트 양식의 제목은 화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목을 달지의 문제, 제목을 단다면 어떤 내용을 제목으로 쓸지의 문제에서 화자들이 고민한다는 것이다. 전자편지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런데 처음 편지를 쓰는 경우와 자신이 받은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경우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답장을 쓰는 경우에는 받은 편지의 제목을 그대로 붙이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또 자주 편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경우 보내는 사람을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전자우편만의 고유한 언어 사용상의 특징이 있을까? 전자우편을 쓸 때 일반편지나 면대면 접촉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적, 통사적, 그래픽적 선택을 한다. 전자우편이 시작된 이래 연구자들은 전자편지의 언어가 하이브리드(hybrid)적이고, 문어와 구어 요소의 혼합이라고 보았다. Ferrara, Brunner, Whitemore(1991)은 전자우편의 언어는 엽서, 신문표제, 전보 등의 요소들을 결합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자우편은 “쓰여진” 것이고 따라서 문자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지만, 말의 자발성과 비형식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Moran & Hawisher, 2001:93-94).

전자우편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이정복(2002a)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자우편의 언어를 음운 및 표기의 면에서 우리말 규범의 면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언어 변용 현상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 언어

---

“전자우편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편지의 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호칭이나 시후가 빠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썼는지도 빠뜨리며, ‘올림’, ‘썸’과 같은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전자 우편을 보내면 화면상에 “누가, 언제, 누구에게” 썼는지가 자동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전자우편도 편지의 한 양식이므로 본문을 적는 칸에 모든 사실을 적는 것이 예의에 맞는 글쓰기 방식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의는 지키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하고 하겠다.”

연구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박동근(2002)에서는 통신언어의 범위를 논하면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통신언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통신 언어의 연구는 주로 현실의 언어 생활과는 다른 특수한 사용이나 규범에 어긋난 사용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통신 언어의 이러한 양상은 국어학자나 문자 언어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문제꺼리<sup>8)</sup>로 여겨진다. 특히 많은 연구들이 대화방의 언어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통신 언어의 문제점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인다.

7) 넓은 의미에서 통신언어는 의사 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이며,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통신언어는 의사 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문자 언어로 일반 언어의 표기 또는 음운적 변이형이나 통신상에서 만들어진 새말, 통신상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말, 또는 통신상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기호를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정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8) EBS 방송 '우리말 우리글(2002년 10월 5일, 10월 12일 방송 시간: 토요일 오후 5:40~6:10)에서는 컴퓨터통신언어를 주제로 조오현 교수(건국대학교 국문과)와의 대담을 방영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아본 결과 '통신언어가 일상언어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설문조사에서 68.72%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통신언어는 곧 언어파괴, 맞춤법파괴, 정신황폐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송의 요지였다. 특히 통신언어와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염려를 나타냈다.

"10대들은 언어가 제대로 익지 않은 언어 습득기에 있다. 그런데, 모방심리가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10대들 사이에서 통신언어가 거의 일상언어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통신언어의 남용은 자라서도 잘 고칠 수 없어,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이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주고,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언어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일상언어와 통신언어를 구분해 사용하는 분별력이 없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표준어나 맞춤법을 확실히 모르는 초등학교생이 맞춤법과 문법에 어긋난 표기를 계속하다보면 자라서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기 힘들고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가 자리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 소통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신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는 점 외에는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대화방 등의 상황적 특성이 다르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비교적 현실의 글 쓰기의 규범을 따르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방에서는 쓰기가 즉흥적,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쓰기와 읽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홈페이지에서는 쓰기가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쓰기와 읽기는 분리되어 일어난다.

	대화방(채팅) 메신저	전자우편	게시판	홈페이지
글쓰기 상황	즉흥적, 즉각적 동기적			의도적, 계획적, 비동기적
언어 사용	비형식적			형식적
목적	상호작용적			정보적

전자우편 쓰기의 이런 “상황”적 특징은 전자편지의 언어를 형성한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쓰는 필자에 따라, 의도하고 있는 독자에 따라, 어떤 기능이느냐에 따라 전자우편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의 편차는 다양하다.

## 5. 전자우편 쓰기 교육의 목적과 내용

몇 해전 “USA Today”지에 “What Employers Look For.”란 기사가 있었다. 3000명의 관리직 간부에게 전문직을 고용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을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태도였다. 그런데 두번째는 의사소통

기술이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일의 경험과 학문적 혹은 기술적 훈련보다도 앞의 순위였던 것이다(Booher, 2001: 3).

전자우편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자편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전자우편의 기능으로 보건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의사소통의 문화를 창조하게 하며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우편 쓰기 교육의 목적은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 하이퍼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자우편의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박진형(1999)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프랑스어 글쓰기를 지도했다.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오류 수정의 과정으로 학생들의 프랑스어 쓰기 능력은 향상될 있었으며, 전자우편을 통한 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동기를 잘 활용한 것은 물론,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수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 전자우편을 통한 쓰기 교육에서 학생들은 쓰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되며 즉 프랑스어로 글 쓰기 하는 것을 즐기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한 글 쓰기 지도를 추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전자우편의 교육은<sup>9)</sup> 전자우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전자우편을 타 영역

---

9) 박진형의 연구 외에도 전자우편을 교육에 활용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외국어 교수 학습에 전자우편을 활용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전자우편을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수방법 차원에서 이용한 것이다.

<교육일반>

정혜선·최성희(1998), 메시지 내용분석을 통한 전자우편의 교육적 활용 연구, 교육공학연구 14.2, 167~185면.

최성희(1996), 컴퓨터 통신 협동학습과 관련된 요인분석: 대학원에서의 전자우편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2.2('96.12), 3~25면.

<영어교육>

의 교육에 이용한 것들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매체 관련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심화 선택 과목인 '작문'에서 하이퍼텍스트와 전자 작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문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전자 작문의 실체가 바로 전자우편과 게시판 글쓰기이다.

- 학술지논문 -

박현주(2000), 전자우편을 활용한 교양영어 작문 교육 全南大어학교육 29, 1~18면.

안종기(2000), 영어학습에서의 전자우편 활용, 대불대論文集 6(2000.7), 49~71면.

박진형(1999), 전자 우편을 이용한 고등학교 프랑스어 쓰기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제8집, 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99. 11), 315~333면.

이의갑(1999) 전자우편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영작문 수행 평가, 교육과정평가연구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9~230면.

안병규(1998), 영어교육을 위한 컴퓨터 매개 통신의 활용, 全南大어학교육 27,1, 32 1~338면

- 학위 논문 -

김필선(2002), 전자우편 기반의 학습평가 시스템,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한근(2002), 전자우편을 이용한 영작문학습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주(2002), 전자우편을 통한 영어지도가 아동의 문자언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장은수(2001), 전자 우편을 통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영어 글쓰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배(2001), 전자우편을 활용한 영어 학습 동기 향상,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승기(2001), 중학교 영어 쓰기 학습을 위한 전자우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애라(2001), 전자우편활동을 통한 영어 쓰기지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신흥(1999),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영작문 방식이 영어 학습자의 영작문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어교육>

김성해(2002), 이메일(E-Mail)을 통한 국어과 쓰기 지도 향상 방안과 인터넷 사용 언어의 올바른 지도, 부산교육 제303호,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176~181면.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반적인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서 전자우편의 일반적 특징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전자우편 쓰기를 하더라도 “전자우편을 써 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거나 좁은 의미의 통신 언어로 쓰여진 편지를 제시하고 언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일상적 편지로 고쳐 쓰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전자우편 쓰기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을 작성할 때의 유의점과 전자우편 예절을 언급한 것이 있었다.

**메일을 작성할 때의 유의하여야 할 점 (대한교과서(주))**

- 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함축하여 간략하게 쓴다.
-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단락을 구분하고 간결하게 쓴다.
- 중요 단어는 대문자로 쓰거나 \*표를 하여 다른 것들과 구분해 준다.
- 한 줄의 길이를 너무 길게 쓰지 않는다.
-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히고 메일을 보낸다.
- 보내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낸다.
- 타인에 대해 말할 때는 정중함을 지켜야 한다.
- 가능한 한 메시지 끝에 시그니처를 포함시키되 4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자우편 예절 (㈜교학사)**

-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히고 편지를 보낸다.
- 불특정 다수에 홍보, 광고성 메일을 동시에 보내지 않는다.
- 한번 전송한 편지는 다시 고칠 수 없으므로 미리 편지를 작성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발송한다.
-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을 즉시 지운다.
- 자신의 ID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 메시지는 가능한 짧게 요점만 작성한다.

- 메일을 보내기 전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한다.
- 제목은 메시지 내용을 함축하여 간결하게 써야 한다.
- 가능한 한 메시지 끝에 성명, 직위, 단체명, 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은 포함시키되 4줄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한 줄의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작성하고 제어 문자는 가능한 쓰지 않는다.
- 메일 상에서 타인에게 말할 때에는 정중함을 지켜야 한다.

전자우편 쓰기 교육은 막연히 유의점이나 예절로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편지 쓰기의 관습과 비교하여 새로운 관습을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과 언어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글쓰기 차원과 예절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된다. “중요 단어는 대문자로 쓰거나 \*표를 하여 다른 것들과 구분해 준다”처럼 외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특성에 맞추어 교육적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은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시안일 수밖에 없다. 교육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 즉 실제 청소년들의 전자우편의 사용 양상과 전자편지 텍스트의 분석이 기초 자료로서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 (1) 언어적 차원의 교육

#### ① 상황과 독자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할 것

사적인 용무와 공적인 용무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또한 독자가 통신 언어와 전자우편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에 따라 언어를 달리 구사해야 한다.

Flynn & Flynn(1998)이 구성한 전자우편 작성의 실용적인 지침서에서는 공적 용도 즉 직장이나 비즈니스 차원의 전자우편은 역피라미드 구성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 긴 문장은 화면상 읽기가 힘이 들므로 되도록 짧은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한 문장에는 주요한 한 아이디어만 담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다.

## ② 제목의 활용

전자우편 텍스트가 일반편지와 가장 다른 점은 제목이 있다는 것이다. 제목을 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목 없이 보내거나 받은 편지의 제목을 그대로 받아 회신으로 보내기도 한다.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제목을 잘 달아 주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자우편을 받아보는데, 웹메일일 경우 화면상에 우선 제목만 나타난다. 따라서 제목을 잘 달아 주어야 받는 사람이 급히 열어 볼 것인지, 나중에 열어 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목을 확실히 활용하면 독자가 편지를 읽을 때 유용한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다. 광고편지에 [광고]를 달아야 하듯이, 자신이 구성하는 전자편지의 내용에 따라 제목에 [자료요청], [문의], [감사], [과제제출], [안부], [학회공지], [연구소공지] 등의 말머리를 달면 읽는 사람에게 안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제목 연말 정산(→ [연구소공지] 연말 정산 )

보낸일시 [2002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15:32:48]

보낸사람 권순희<01197982163@hanmail.net>

받는사람

<scleermn@hanmail.net>

<dramachae@lycos.co.kr>

<gljome@hanmail.net>, <hyckjj@hanafos.com>, <hmy805@yahoo.co.kr>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콜로퀴엄이 있는 18일에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안 되시는 분은 준비되는 대로 1과제는 신명선 선생님에게, 2과제는 고영화 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교육연구소

권순희

## (2) 매체 차원의 교육

### ① 아바타와 전자서명의 활용

전자우편과 일반편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우편은 아바타와 전자서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우편에는 끝인사와 보내는 사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서명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계절인사나 좋은 글귀 등으로 전자서명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가독성을 높일 것

전체 메시지에서 타자할 때 한 행씩 띄어 치지 말라(never double-space)고 권하고 있다. 독자는 하나의 단위로서 문장, 단락, 목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면에서 한 행씩 띄어 치는 것은 의미를 덩어리로 파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단락 사이의 더블-스페이싱은 가독성을 돕는다(Booher, 2001: 3).

전자우편은 스크린 위에 글씨가 쓰여진다. 스크린은 종이보다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게 한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글자 크기와

줄간 간격, 문단의 구분이 필요하다. 즉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통 받는 사람이 읽기 편하도록 가로로 너무 긴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한 줄에 보이는 글자 수로 쓰고, 단락에 따라 한 줄씩 빈 공간을 주어 읽기 쉽게 해 준다.

③ 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것

전자편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매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편지지를 활용한다든지, 편지의 내용에 알맞은 음악을 함께 싣을 수도 있다. 전자편지의 목적에 따라 동영상도 함께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구분

여러 가지 기능의 편지를 같은 전자우편 계정으로 받았을 때보다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의 편지를 분리해 받았을 때 정보의 이용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업무용 전자우편 주소와 사적인 전자우편 주소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한다.

⑤ 매체의 적절한 사용

전자우편이 모든 경우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전자우편이 효과적일 때와 전화가 효과적일 때를 잘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Booher(2001)은 안 좋은 소식은 전자우편보다는 전화를 사용해야 하며, 전화보다도 면대면 대화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전하는 사람의 유감과 공감의 정도를 전할 수 있어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6. 결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의사 소통 방식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교육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수 방법과 내용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이다.

인터넷은 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의 새로운 형식이 가득찬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에서 문식성과 기술간의 주의깊게 구조화된 연결(링크)을 부정할 수 없다. 무비판적인 열광이나 공포를 느끼면 중요한 논점을 놓치게 된다(Peterson, 2001). 무조건적인 거부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국어교육 과정에서 전자우편 쓰기 교육 더 나아가 하이퍼텍스트 구성에 대한 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교수 매체 차원이나 교재로서에서 활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미 전자우편은 우리의 삶에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각종 단체에 회원이 되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전자우편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은 이미 전화나 일반편지를 대신한 주요한 연락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어교육이 학습자들의 국어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 방식 또한 국어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구본관, 「컴퓨터 통신 대화명의 조어 방식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10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 권순희, 「컴퓨터 통신 대화의 언어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 제10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 권연진, 「컴퓨터 통신 언어의 유형별 실태 및 바람직한 방안」, 『언어과학』 7-2, 한국언어학회 동남지회, 2000.
- 김성벽,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연구-미디어 생태학의 연구경향과 의의」, 『언론연구소 정기세미나 자료집』,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2001.
- 김재선·신선진,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의 사용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1권 1호,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97.
- 라도삼, 「가상공간의 담론체계와 하이퍼텍스트」, 『언론연구』 Vol.6. No.1.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1997.
- 류현주, 「사이버 팬터지아」, 『한국언어문화』 제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 민경배, 「사이버 현상과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터넷과 새로운 문화형성의 과제' 토론회 발표문, 2001.  
<http://www.cyberculture.re.kr>.
- 민경배,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네트워크의 중요성」,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2002. <http://www.cyberculture.re.kr>.
- 민현식, 「정보 통신 언어의 순화 및 정보윤리교육의 학교교육 활용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 박동근,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한말연구』 제10호, 한말연구학회, 2002.
- 박영록,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 『학생생활연구』, 충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1.
- 박우현, 「인터넷 전자우편의 세계」, 『신동아』 12월호, 1998.
- 백영균·설양환·최명숙, 『교육@인터넷』, 양서원, 2000.
- 박진형, 「프랑스 어문 교육」, 『프랑스어문교육』 8호,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99.

- 손세모들, 「인터넷 게시판 글 제목 분석」, 『한국언어문화』 제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 송경숙, 「전자담화에서의 전체 분석」, 『텍스트언어학』 제12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
- 안민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대인 매체의 이용 및 선택 행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7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2001.
- 유 일, 「커뮤니케이션 매체 선택 모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 연구』 23권 1호,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99.
- 이정복, 「바람직한 통신언어 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2000.
- 이정복, 「10대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 사용과 문제점」, 『한글사랑』 2001년 봄호, 한글사랑, 2001.
- 이정복, 「통신 언어 문장종결법의 특성」, 『우리말글』 제22집, 우리말글학회, 2001.
- 이정복, 「전자편지 언어에 나타난 우리말 변용 현상」,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2a.
- 이정복, 「전자편지 텍스트의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12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2b.
- 임철성, 「컴퓨터 공개 대화방 대화의 매체 언어적 성격과 대화 양식 고찰」, 『텍스트언어학』 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0.
- 전병용,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21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 정인성, 『원격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9.
- 주리에 · 권선만, 「인터넷을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Psychological Science』 vol.10. No.1,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2001.
- 최덕철 · 김영만, 「웹사이트의 특성과 인터넷 이용성향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1.

- 최 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인터넷 이용동기와 사용에 관한 연구(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 8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2001.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http://nic.or.kr>, 2002. 1.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http://nic.or.kr>, 2002. 7.
- 황진구, 「청소년 정보화실태와 인터넷 문화-청소년 정보문화 탐색을 위한 작은 제안」, 10월 토요일 포럼 발표문, <http://www.cyberculture.re.kr>, 2001.
- Booher, D, *E-Writing-21st-Century Tools for Effective Commmunication*, Pocket Books, 2001.
- Flynn & Flynn, *Writing Effective E-Mail*, Crisp Publication, 1998.
- Honeycutt, L., Comparing E-Mail and Synchronous Conferencing in Online Peer Responce, *Written Communication*, Vol.18 No.1, 2001, pp.26-60.
- Moran, C. and Hawisher, G., The rhetorics and languages of electronic mail, In Snyder, I.(ed.), *Page to Screen - Taking Literacy into the Electronic Era*, Routledge, 2001.
- Peterson, P.W., The debate about online learning: Key issues for Writing teachers, *Computers and Composition* 18, 2001, 359-370.

■ Abstract

## A Study on Teaching Writing of E-Mail

Kim Jeong-ja

The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as been changing rapidly. The new methods and systems of communication have come out. Students are in need of teaching e-writing. Students must construct the form and contents appropriate for Internet media. From this point of view, I approach e-mail as a part of e-writ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eaching writing of e-mail. In the 7th curriculum, writing in computer and e-writing are proposed in contents system. But the contents are realized to the authorized textbooks variously. Some textbooks don't explain the methods of e-mail writing but assigns writing of e-mail to students. Some textbooks pay attention to problems of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The teaching writing of e-mail is regarded as the ability of new communication. Therefore the goal of teaching writing of e-mail is to make students developed the communication ability. We have to establish the contents of teaching writing of e-mail according to the aspect of language use and the aspect of media.